

조계종, 종교용지 분양 통계조차 없어서야

말로만 “도심 포교 하자”, 종단 차원 로드맵 시급... 개별 사찰 노력만으로는 안돼



불교가 사회 속으로 들어가 부처님의 법을 전할 도심 포교 방안 마련이 시급하다. 우리나라의 대표 도시 강남에서도 특색 있는 포교를 펼치는 봉은사 지붕이 빌딩 숲 사이에서도 위촉되지 않는 불법의 힘을 보여주는 듯 하다. 사진=박재환 기자

신도시와 도심 포교 활성화에 대한 중요성은 불교계에서 이미 오랫동안 제기돼 온 문제다. 불교 발전을 위한 젊은층 유입이 시급하고, 이를 위해 도시 및 지역 사회의 신뢰를 형성해야 하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각 사찰들도 자체적으로 활성화 대책을 마련하면서 각종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수행공간이 부족했던 서울 조계사(주지 토진)는 성역화 불사의 일환이었던 삼오모텔 인수를 마치고 3월 7일 인수식을 가

졌다. 조계사는 앞으로 삼오모텔을 ‘도심 포교 100주년 기념관’으로 활용하며 신도들의 수행 공간으로 사용할 계획이다. 지하 1층은 어린이, 청소년 전용법당으로 사용해 불교계의 취약한 어린이, 청소년 포교를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지상 2층은 설법전 및 사무공간, 지상 1층은 신생활 휴게공간과 사찰 음식점으로 활용된다.

은평 뉴타운과 인접한 진관사(주지 계호)는 지역의 역사와 문화를 강조하며 주민들에게 다가서고 있다. 진관사는 2009

년 5월 칠성각 해체 복원 중 불단과 기둥 사이에서 조월 스님의 태극기 및 독립운동 사료가 발굴됐다. 매년 3월 1일에는 주민들과 함께 조월 스님의 뜻을 기리는 추모 법회를 열고 ‘조월 장학금’도 재정해 지역 사회 인재 양성에 기여하고 있다.

서울 우면동 관문사(주지 영제)도 도심 포교 활성화와 지역 밀착형 사찰로 거듭나기 위해 문화아카데미를 운영하고 있다. 문화아카데미는 종교와 상관없이 참여할 수 있으며 올해 차츰 강좌를 늘려나갈 방침이다.

서울 봉은사(주지 진화)도 불교생활 솔루션, 달마학교지역아동센터, 선재무료진료소 등을 운영하고 있다. 광주 무각사(주지 청학)는 사찰 내 갤러리를 마련해 주민들이 여가를 즐기면서 자연스럽게 불교와 친숙해지도록 유도하고 있다. 또 재활용장터 ‘보물섬’은 종교 물품을 나누는 자리를 마련해 지역민들의 친환경적 삶 실천에 앞장서고 있다. 보물섬에는 부모들이 자녀와 함께 참여해 많은 인기를 모으고 있다.

부천 석왕사(주지 영담)도 주민친화적 사찰을 지향하며 아름다운 가계, 수영장, 외국인 노동자 무료 진료소 등을 운영하고 있다. 주민들이 편의시설을 이용하면서 자연스럽게 사찰과 가까워지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그러나 신도시 및 뉴타운 등 도심 포교 활성화에 대한 개별사찰들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종단 차원의 의지와 추진력이 미약해 우려를 낳고 있다.

조계종은 2월 22일 용인 서봉사 주지 허운 스님을 신도시 정책 특사로 임명했다. 신도시 정책 특사는 신도시 포교연구와 종교부지 매입 현안을 다루게 된다.

그러나 허운 스님은 “신도시 정책에 대해 아직 어떤 것도 말할 수 없다. 세밀한 연구를 통해 실현 가능한 방안을 찾겠다”며 입을 굳게 다물고 있어 도심 포교 활성화에 대한 종단의 계획이 구체화되지 않았음을 드러냈다.

더구나 조계종은 포교 연구의 기초가 될 신도시 및 뉴타운 개발로 이주한 사찰과 종교용지 분양에 대한 정확한 통계조차 갖고 있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법안 스님은 3월 10일 열린 제186회 중앙종회 임시회에서 신도시 및 뉴타운 지역 종교용지 분양에 대해 질의했다. 스님은 “신도시 및 뉴타운 도시지역 종교용지 분양 현황과 각 종교별 자료를 요청한다. 분양받은 사찰의 경우 실제로 건립이 이루어졌는지, 이웃 종교와 비교해 답변해 달라”고 질의했다. 그러나 포교원은 자료 확인 기간이 짧아 자료가 준비되지 않았으며 다

음 종회 회기 때 보고하겠다고만 밝혔다.

현근 스님은 “교세가 자꾸 위축되고 있다. 종단이 현실적으로 재원 마련이 어려워 특별단의 조치가 필요한 것 아니냐. 포교원은 유관부서와 협의해 실천방안을 제시해 달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포교원 포교부장 계성 스님은 “토지 처분금 20%를 종단에 납부해 도심 사찰 부지 매입비용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고 답했다. 토지 처분금은 당초 교구에 관계없이 총무원이 취합해 교구 지원과 신도시 포교거점 구축 등에 활용하는 방안으로 추진됐다. 그러나 교구본사들의 반발로 교구별로 취합·활용하는 것으로 축소됐다.

불교미래사회연구소가 2010년 1월에 발간한 ‘조계종 교구 활성화 방안 연구’에 따르면 광고, 광고, 동탄, 양주, 파주, 김포 한강 신도시의 종교용지에 입주한 사찰은 한 곳도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또한 32개 경기도 시·군 중에서 불교가 우세한 지역은 9개에 불과했다.

이에 대해 불교미래사회연구소는 “사찰이 도시화를 추진하는 사회 현상에 제대로 적응하지 못했고, 종단과 해당 지역 교구의 신도시 포교 전략 부재를 역설적으로 보여주는 것이다”라고 지적했다. 연구소

측은 또 경기도 내 불교세가 30% 미만인 8개 지역 중 5개 지역이 뉴타운 개발 지역이라고 밝혀 신도시·뉴타운 지역에 포교가 절실함을 나타냈다.

2005년 불교신문 조사에 따르면 당시 택지개발사업이 이뤄진 58곳의 종교용지 중 기독교는 전체의 60%에 해당하는 35곳의 종교용지를 획득했고, 가톨릭도 17%인 10곳을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당시 조사에서 불교계는 대구 영남불교대학 관음사가 ‘대구 칠곡3지구’에 만든 포교당이 유일했다.

또한 재정 마련을 위한 대출 제도에서도 불교계는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웃 종교는 신용보증기금 등 고정적인 수입이 뚜렷하고 교단과 연관된 신용협동조합이 활발해 대출이 용이하다. 그러나 불교계는 고정된 수입을 파악하기 어려워 금융기관 대출이 쉽지 않다. 더구나 스님들이 사찰 건립을 위해 금융기관 대출 자체를 꺼리는 경향도 한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태고종 열린선원장 법현 스님은 “현실적으로 종교부지 입찰에는 많은 비용과 정보가 필요하다. 총무원 만의 힘으로도 어려움이 있을 것이다”라고 밝혀 불교계 전체가 도심포교에 관심을 가질 것을 강조했다. 박기범기자

특별기고

젊은 부부·퇴직자 포교 집중 필요

포교는 지역인구의 특성에 맞도록 이루어질 때 효율성이 높아질 수 있다. 그러기 위해서는 지역인구의 특성이 분석되고 그에 맞는 포교 콘텐츠를 개발해야 한다. 최근의 언론보도에 따르면, 신혼부부 및 퇴직자를 중심으로 신도시로의 ‘탈(脫)서울’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고 한다. 서울에 비하여 주택가격이 낮은 신도시로 자금력이 약한 신혼부부와 주택매매차익의 유한 자금을 활용하기 위한 퇴직자들이 이주하기 때문이다.

신혼부부를 위한 포교 콘텐츠를 고려함에 있어서는 영·유아 자녀들에 대한 포교 방안을 떠올리고서 생각해서는 안 된다. 어린 시절의 종교관은 평생 유

면, 부모와 함께 사찰을 찾은 어린 자녀들에게 한결 사찰과 불교에 대한 친밀감과 친숙함을 높여줄 수 있을 것이다. 또한 한자놀이방, 전통문화놀이방, 불교음식 만들기 놀이방, 찬불가 부르기 놀이방 등 다양한 불교문화콘텐츠를 가진 놀이방 등의 운영도 영·유아 시절부터 불교에 대한 거부감 내지 거리감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이 될 수 있다.

그러면 신혼부부 자신을 위한 포교 콘텐츠로는 무엇이 있을까? 신혼부부를 위해서는 명상 프로그램을 제안한다. 신혼부부들은 사회 초년생 또는 임신부들인 경우가 많은데 사회 초년생들은 직장 스트레스 해소를 위하여 그리고 임신부

신혼부부, 퇴직자 탈 서울화 가속화

명상 통한 포교로 새롭게 포용해야

들은 태교를 위하여 명상을 하고자 하는 욕구가 강하기 때문이다. 명상의 여러 효과는 1950년대부터 지금까지 수천 편에 달하는 연구문을 통해 보고된 바 있다. 특히 스트레스를 다스리는 데 있어 매우 뛰어난 직간접적 효과가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명상을 하면 스트레스가 줄어들고, 집중력과 창의력이 향상된다는 것이다. 만일 신도시 포교당에서 불교문화콘텐츠인 명상 프로그램을 대중적 차원에서 진행한다면 사회 초년생과 임신부 등의 신혼부부들에게 보다 쉽게 불교를 접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퇴직자를 위해서는 그 동안의 삶을 회고하고 잘 마무리 할 수 있는 프로그램들이 좋은 포교 콘텐츠가 될 수 있다. 퇴직자들은 직장에서도 가정에서도 필요 없는 존재인 자신을 발견하고 당황하게 된다. 지금까지 누구를 위해 그토록 열심히 일했다 하는 깊은 허무감과 우울증에 빠지게 되는 것이다. 성공적인 노후를 위해서는 마인드 컨트롤이 중요한 것인데 언급한 명상 프로그램은 퇴직자들을 위해서도 여전히 유효하다. 그리고 퇴직자 중에는 남은 삶을 이웃을 위한 봉사에 헌신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적지 않은데 이들을 위하여 자원봉사 활동을 전개하는 것도 필요하다. 자원봉사 활동은 지역사회에서 사찰의 이미지를 긍정적으로

심어줄 수 있기 때문에 간접 포교의 효과도 가져올 수 있다. 또한 나이가 든 퇴직자들에게 있어서는 건강이 여간 신경이 쓰이는 문제가 아니다. 선무도와 태극권, 대체의학 프로그램, 산사 순례 등은 건강에 관심 있는 퇴직자들의 발길을 사찰이나 포교당으로 이끌 수 있는 포교 콘텐츠가 될 수 있다.



조기범(동국대학교 불교문화연구원 교수)

활인선원 정진대 중 하안거·동안거 재가자 모집

제 5차 참선대중화 선회 삼매체험 선수련회·단기출가

근기를 없앤 활인참선이 생애 깨달아 성불하는 참선

공부 힘을 얻어 걸림없는 대자유인이 되어 세상의 주인공으로 산다. 모든 장애 속박에서 벗어나 해탈을 누린다. 물만 마시고 고혈압, 당뇨병, 성인병, 난치병 퇴치·예방가능 면역성, 노화방, 해독, 아토피, 피부미용, 생리연장, 금연, 금주

부담을 없앤 단식, 금강단식. 바로 끊고 바로 먹는 뒤탈 없는 참선 단식

참선대중화선회 일정 (3일간) : 4월 8일(금) 오후 3시 입재

하안거 동안거 산철결제 일정	수련회 단기출가 일정
하 안 거(음) 4월 15일 - 7월 15일(3개월)	3월 26일 ~ 3월 30일(5일간)
가을산철(음) 8월 1일 - 9월 30일(2개월)	~ 4월 23일(30일간)
동 안 거(음) 10월 15일 - 1월 15일(3개월)	4월 8일 ~ 4월 12일(5일간)
봄 산 철(음) 2월 1일 - 3월 30일(2개월)	~ 5월 7일(30일간)

다이어트 1일 최고 3kg 청소년 대학생 일반

참선전문도량 행복제작소 안성맞춤 활인선원 네이버 카페 ▼ 활인선원 경기도 안성시 죽산면 매산리 667-3 ☎ 1644-5266 / 070-7519-9929

자연공원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전통사찰 경내지 중 공원문화유산지구를 지정해 시설을 설치하거나 입장료를 징수할 수 있는 내용이 담긴 자연공원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국회는 3월 11일 본회의를 열고 자연공원법과 농업협동조합 일부개정안 등을 통과시켰다. 주호영 의원(한나라당)이 대표 발의한 자연공원법은 9일 국회환경노동위원회 통과해 본회의에 상정됐다. 박기범기자

[현대불교신문사·미안마문화원 공동캠페인]

‘자비의 미안마 돕기’

불자님들의 정성어린 후원금은 양곤 나인파에 건설중인 요리아기술종합대학교 건립, 식수부족 공동우물 파기, 신부출가의식, 불자어린이 학습품 지원 등으로 전달되며 봉사단 현지 방문에 맞춰 후원물품도 직접 전달됩니다. 담당자 안내를 받으신 후 후원금 입금과 후원물품을 보내주시면 됩니다. 후원내역을 지정하실 수 있으며 봉사단으로도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문의 : 미안마문화원 02)733-5670 / 현대불교신문 02)2004-8214

후원금 입금 : 농협 301-0016-0537-91 국제불교지도자협회 후원물품은 현대불교신문사로 담당자 통화 후 보내주시면 됩니다.